

요한복음
Logos(말씀) 묵상



김정복 목사



김정복 목사/ Rev. Kim, Chung Bok

기도학 교수/ Professor of Prayerology

- 1939년 9월 24일 서울에서 출생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BA)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MBA)
-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간사 역임(1965 ~ 1977년)
- 기독교 대한감리회 자교교회 해외파송 선교사(1980.4.27)
-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 Div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 Min (Prayerology)
-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설립 및 대표(현재)
- LA 예본교회 개척 및 원로목사
- WMC 기도학교 설립/대표 겸 교수(현재)
- Calvin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기도학 교수 역임
- 월간기도(Monthly Prayer Journal) 편집인 겸 발행인
- ANC 온누리교회 협력목사/ANC NSEnC 대학 성경강해 및 기도 강해 교수(현재)

요한복음
Logos(말씀) 묵상

김 정 복 목사

요한복음, Logos(말씀) 묵상을 발간하면서

말씀(Logos)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Logos)은 곧 하나님이십니다(요1:1).

말씀(Logos)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요1:14).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며,
두려운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2026.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정복 목사

서언 (Preface)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Son of Man)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Atonement) 하심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하심으로
마귀를 심판(요3:14-15/16:11) 하시고 승리하심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다.

요한복음의 장별 개요

- 1장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
- 2장 혼례와 포도주와 성전과 예수님
- 3장 거듭남과 니고데모와 예수님
- 4장 목마름/갈증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 5장 병고침과 베데스다 못과 예수님
- 6장 오병이어와 참된 양식과 예수님
- 7장 하나님의 때와 생수의 강과 예수님
- 8장 사람의 죄와 율법과 예수님
- 9장 눈먼 자와 안식일과 예수님
- 10장 양의 문과 선한 목자와 예수님
- 11장 사람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 12장 예배와 옥합의 향유와 참된 헌신과 예수님
- 13장 참된 스승(Mentor)과 예수님
- 14장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 15장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
- 16장 성령님의 책망과 예수님
- 17장 예수님의 기도
- 18장 불법 체포와 불법 심문과 불법 재판과 예수님
- 19장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
- 20장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치심
- 21장 예수님의 현현과 가르치심

차례

1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니라	6
	2.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7
	3.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8
	4.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Come & See)"	9
2장	5. 갈릴리 가나의 혼례와 포도주와 예수님	11
	6.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13
3장	7.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5
	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
4장	9.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1)	21
	10.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2)	23
5장	11. 베데스다 못과 행각에 있는 환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25
	12. 예수님께서 38년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다	27
6장	13.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참된 양식	29
	14.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32
	15.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 제자로 택하신 이유	34
7장	16. "예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	36
8장	17.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	38
	18.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40
	19.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42
9장	20.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하신 예수님의 사역	44
	21.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46

10장	22.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48
11장	23.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죽음과 누이들과 예수님의 사역	50
12장	24.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52
	25.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54
	26. 유월절에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와서 인자를 뵈고자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57
13장	27.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말씀	60
14장	28.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62
	29.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64
	30. 가룟인 아닌 유다의 질문,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67
15장	3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	70
	32. 예수님의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72
16장	33.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 주신다는 말씀	74
17장	34.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77
18장	35. 그리스도 예수를 불법 체포하고, 불법 심문하고, 불법 재판하여 십자가에서 죽인 말씀	79
19장	3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돌아가신 후,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82
20장	37.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84
	38.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	87
21장	3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90
	40.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You follow me)" 하신 말씀	9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John1:1) (NKJV)

1) 말씀(The Word/Logos)과 하나님(God)은 어떠한 관계인가?

- (1) 말씀(The Word/Logos)은 태초(In the beginning)에 계셨다.
- (2)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The Word was with God.
- (3)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 The Word was God.
 - The Word(Logos) = God

2) 말씀(The Word)과 예수님(Jesus)은 어떠한 관계인가?

- 말씀(Logos)은 하나님(God)이시고, 말씀이 육신(Flesh)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Jesus)이다(요1:1, 1:14).

3) 말씀(Logos)은 언제부터 계셨나?

- 말씀(Logos)은 태초부터 계셨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요1:1).
- En arche en ho logos(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요1:1)
- Bereshit bara Elohim(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창1:1)

4)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나는 전능자 엘로힘(Elohim) 하나님이다.
- (2) 나는 창조주 여호와(YHWH/Yahweh/Jehovah) 하나님이다.
 - 나는 스스로 있는 자
 - I am that I am.
 - 여호와(출3:14-15)
- (3) 전능자되시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다.

5)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생명이신 말씀(Logos)이 하나님(God)이시다.

- 이 말씀(Logos)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육신(Flesh)이 되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말씀(Logos/The Word) = 하나님(God) =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1:2-5)

- 1)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는 말씀(Logos)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이다.
- 2) 이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창1:1)이 이 말씀(Logos)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요1:1) 이 말씀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Flesh)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1:14).
- 3) 천지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은 모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창1:1, 26, 2:7).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그 안"은 어디인가?
 - (1) "그 안"은 말씀(Logos) 안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 (2) "그 안"은 하나님(God) 안이다. 곧 빛 안이다.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 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1:5)
 - (3)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안이다. 곧 생명과 빛 안이다.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뜻은 무엇인가?
 - (1)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사탄)의 세력은 빛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 (2)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 (3)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행1:8), 전도자 또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Send Me".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1:9-14)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요1:9-14)

1)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은 누구신가?

- (1) 참 빛은 말씀(Logos)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그는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엡1:4)
- (2)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
 -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 (3)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마1:1)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1:12).

2)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1:13),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엡2:8-9).

3) 말씀(Logos)은 곧 하나님이시고(요1:1), 말씀(Logos)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육신(Flesh)이 되사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말씀(Logos)과 하나님(God)과 예수님(Jesus)은 같은 분이다.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Come & See) 하신 말씀

(요1:35-51)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

-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 이다(마16:14)

(1)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와서 보라" (Come & See)

- "와서 (Come)"

-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을까?

말씀(Logos)은 하나님 이시고(요1:1), 말씀이 육신(Flesh)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Jesus) 이시다(요1:14).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2)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 "보라(See)"

-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한다.

- 말씀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마5:8)고 하셨다.

-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면 만날 수 있다.

-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

-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Born again Christian)(요 3:5, 딤후3: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고후5:17)이 된다.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

(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유월절 어린 양)이로다"(요1:29)

(2)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요1:41).

(3) 빌립은 이웃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메시아를 만났다(요1:45).

(4)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1:49)

(5)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한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한 사람은 먼저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아/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고백한다.

(1)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은 모두 어부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다. (마4:19)

(2) 갈릴리 호수와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던 어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역자로 일하게 된다.

(3) 땅의 것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위엣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과 기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간다.

(4)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5) 예수님을 와서 만난 사람은, 내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

-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갈릴리 가나의 혼례와 포도주와 예수님

(요2:1-11)

1) 갈릴리(Galilee) 가나(Cana)는 어떠한 곳인가?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소외된 북쪽 땅이고, 가나는 히브리어로 갈대를 뜻하며, 주변에 갈대와 늪지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갈릴리 가나는 가난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소외된 땅, 갈대와 늪지가 있는 지역이다.

2)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방인의 혼례이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3)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한다

4)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다(요2:1-4)

(1)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하고 말 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 그러나 이것은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의 언어적 문제이다.
- 한국어로 "여자여"는, 영어로는 "Woman"이고, 헬라어는 "gynai" 이다.
- 어머니에게 "gynai" 하고 부르는 것은 무례하거나 낮추어 부른 말이 아니다. 친근함과 존경을 담은 말이다.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과 같다.

(2) 이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다.

(3) 예수님은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

(4)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절대 순종을 말씀하신다.

-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다.

(5)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6)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2:10-11)

5)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자연산 포도주 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 뜻은 무엇인가?

- (1) 당시 혼례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이다. 포도주는 신랑과 신부는 물론 모든 하객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음료이다.
- (2) 혼례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 그런데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에 기쁨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 (3) 혼례는 가정의 시작이다. 가정의 시작부터 기쁨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 (4) 이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 주신다.
- (5)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과 모든 하객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신다.

6) 참된 기쁨(Joy)은 어디서 오나?

- 참된 기쁨은 예수님 곧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의 열매에는 기쁨(Joy)이 있다. 우리가 성령충만할 때에 기쁨이 있다.

7) 혼례(Wedding)는 가정(Home)의 시작이고 가정(Home)에는 기쁨(Joy)이 있어야 한다.

8) 참된 기쁨은 자연산 포도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9)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실 때에 나와 나의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다.

-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2:19-20)

10)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 (마25:1-13)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계19:7-9)

11) 참된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기쁨, 가족의 기쁨, 가정의 기쁨은 모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만 있다.

12) 참된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나에게 오는 것이다.

-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전1:2-3)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요2:13-22)

1.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 (1)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나?
- 당시 유대교는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제도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 (2) 너희가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되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출12:5)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집에서 키운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성전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오면, 성전에서 여러 가지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성전에서 다시 비싼 값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 (3) 따라서 성전 안은 온통 제물을 교환하거나, 사고 파는 장터가 되었다.
- (4) 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마21:12-13, 요2:16).
- (5) 모세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성소 안에는 금 촛대와 금 떡상과 금 향단이 있는 거룩한 지상 교회를 뜻하고,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과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천상 교회를 뜻한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으며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 (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마27:50-51),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히10:19-20)

2)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

-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엡1:22-23)
-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계21:22-23)

3)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하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

4)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5) 성도(Saint)의 삶은 거룩하고, 그 행실이, 옳고 깨끗해야 한다.

- (1) 성전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몸이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 (2) 성전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내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거룩하게 보전되어야 한다.
- (3)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그의 행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계19:7-9)
- (4)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말씀 안에서 항상 회개하며, 옳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6)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의 거룩한 삶과 같은 것이므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시고 정결케 하신다.

-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교만)을 예수님의 채찍으로 몰아내야 한다. 철저히 회개하여야 한다.

7)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다(요2:18-22).

-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Ego)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3:1:13)

1)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왔을까?

-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며, 율법과 지식에 정통한 바리새인임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를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웠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헌신한 사람이다.

2)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한다.

3)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다.

4)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 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람의 거듭남을 육체적으로 생각한다.

5)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며, 육체가 아닌 영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다.

6)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는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

7)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8)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곧 중생이란 어떤 것인가?

- 거듭남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성격의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 곧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3:5)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9)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남 곧 중생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일어난다.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엡2:8)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들이다(요1:12-13)

10)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 사람의 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창1:26, 2:7, 3:19).

(1) 육체(Flesh)/흙

(2) 혼(Soul)/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3) 영(Spirit)/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영체인 혼(Soul)과 영(Spirit)이 들어가는 곳이다.

11) 죽은 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체는 어떻게 되나?

-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창 3:19),
- 영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요5:28-29)

1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과 혼이 죽지 않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5:24)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13) 산 자나 죽은 자가 모두 백보좌 심판대에 서게 된다.

-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20:11-15)

14) 육체는 죽어도 영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 (1) 물로 거듭남은 내가 물세례를 받을 때에 나의 육체(자아)는 물 속에서 죽었고,
- (2) 성령으로 거듭남은 내가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15) 먼저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 날 수 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

-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아(Ego)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Ego 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다.
-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어야 무덤에서 부활이 있다.

16) 예수님께서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하셨고

17)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4-18)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4-15)는 무슨 뜻인가?

1) 민21:5-9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싫어하고 불평하므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사 물게 하시므로 백성중에 죽는 자가 많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여호와와 당신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 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즉 모두 살더라(민21:5-9)

(1)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놋뱀은 사탄이 심판을 받고 죽었음을 뜻한다.

-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16:11)

(2) 따라서 살아있는 불뱀에 물려 죽게된 자가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곧 죽은 뱀을 쳐다 본즉 살았다.

(3) 이는 산 불뱀의 독 때문에 죽게 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독이 이미 죽었으므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4) 그러면 뱀 곧 사탄은 언제 죽었나?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뱀 곧 사탄도 함께 죽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므로 그 죄값으로 사탄이 심판을 받아 사탄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요16:11, 히4:15, 롬6:23).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5) 장대에 달린 죽은 놋뱀을 쳐다 보는 순간에 산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한다는 구속의 예표이다.

2) 그러면 뱀 곧 사탄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temptation)하고, 악(evil)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

(1)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에 있지 않고 구원 받은 혼(Soul)과 영(Spirit)이 아직 육체(Flesh)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2) 우리의 혼(Soul)과 영(Spirit)은 구원받았으나 아직 육체(Flesh)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Satan)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이다.

-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7:14-20)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5-17)

(3)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성도(Saint)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3)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5)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6)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말씀(Logos)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7) 말씀(Logos)이 하나님이시고(요1:1), 말씀(Logos)이 육신(Flesh)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속(Redeem)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낙원(Paradise)에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Mediator)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1)

(요4:3-14)

- 1)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과 사마리아를 피하여 돌아서 가는 길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하여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
- 2)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택하셨다. 이곳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 3)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때가 6시(정오)였다.
그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온다. 일반적으로 정숙한 여자는 해 질 때/저녁때에 물을 길어 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대낮/정오에 물을 길어 왔다. 이 여자는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한다.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인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 5)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 갔고 없었다.
- 6)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사마리아 여자는 아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
 - (1) 하나님의 선물/구원
 - (2) 앞에 계신 예수님/메시아
 - (3) 생수/성령님
 -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 7)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셨으나, 그 여자는 육체적, 물질적,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 8)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9)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떠한 물인가?

(1) 이사야의 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55:1-2)

(2) 아모스의 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8:11)

(3) 예수님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39)

10)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갈증이 있다.

- (1) 육체적 목마름/갈증에는 좋은 물/생수가 있고
- (2) 영혼의 목마름/갈증에는 말씀/예수님이 있다(마4:4).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전해야 한다.

첫째, 말씀을 읽어라.

-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4:13)

둘째, 말씀을 들어라.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셋째, 말씀을 먹고 전하라.

-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 (2)

(요4:15-30)

1)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1) 예수님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2) 여자의 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4:15)

(3)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4) 여자의 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

(6) 여자의 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자의 영적 눈이 점점 밝아진다.

-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았지만(요4:9),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된다.

3) 그리고 예배에 관하여 문의한다.

(1)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2)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신다.

(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다.

4)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고백한다.

- (1)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2)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 (3)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전한다.
- (4) 육체적 목마름/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오에 우물로 나온 문제 많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점진적으로 영적 목마름/갈증이 해결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선지자로, 말씀을 듣고난 후에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전도자가 되었다.

5)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있다.

- (1)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고의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다.
- (2)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러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 (3)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을 때에 법을 어기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
- (4)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 갈증을 아시고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 (5)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여 잘못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회개하게 하신다.
- (6) 그리고 여자의 잘못된 예배 의식과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신다.
- (7) 그 여자의 가정 문제, 신앙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마리아 여자의 육체적, 영적 목마름/갈증을 해결해 주셨다.
- (8) 예수님은 사마리아 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대속자이시며, 구세주/메시아이시다.
- (9)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므로 목마름/갈증이 있는 것이다.
 - 사랑의 목마름/갈증
 - 죄/대속의 목마름/갈증
 - 기쁨의 목마름/갈증
 - 평강의 목마름/갈증
 - 안식의 목마름/갈증
- (10)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My Lord)/나의 하나님(My God) 으로 모시고 믿을 때에 나의 모든 목마름/갈증이 해소되는 것이다.

베데스다 못과 행각에 있는 환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요5:1-9)

1) 베데스다 못과 행각은 어떤 곳인가?

- (1)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못으로 자비(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 (2)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못이고, 곁에 있는 행각은 이 전설 곧 미신을 믿고 모여든 많은 불치 병자들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치유를 바라고 모여 있던 장소이다. 이곳은 믿음이 없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2) 이 때에 예수님께서 이 행각에 찾아 오신다. 그리고 병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 가서 물으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 병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38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5)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1) 베데스다 못의 전설과 그 전설을 믿고 기다리는 환자들의 잘못된 믿음/신앙을 본다.
 - 행각에 누워 있는 환자들 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같은 환자들이다.
 - 38년 된 자는 이 병을 38년이나 고치지 못하고 병고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 38년 된 환자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대표하는 것이다.
- (2) 사람은 모두 죄의 병, 율법을 범하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120세 안에 죽게 되어 있다(창6:3).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창3:6). 그리고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6:23).

(3)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다.

첫째, 예수님이 먼저 병자에게 찾아 오신다. / 예수님의 은혜

둘째, 병자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 보신다. / 예수님의 사랑

셋째,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 인격적 예우

(4) 이 환자를 자세히 보셨고 38년 동안 낫기를 원하고 있음을 아셨다면 고쳐 주시지 않고,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

-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인격적으로 예우하시기 때문이다.

(5) 짐승에게 음식을 주거나 거지에게 금전을 줄 때에는 묻지 않고 준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에는 먼저 묻고 원하는 것을 준다. 식당에서도 먼저 메뉴를 주고 원하는 음식을 준다. 이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예우함이다.

(6)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이와같이 예우와 사랑으로 대하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에 관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사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7)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Agape)이고 은혜이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예수님께서 38년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다

(요5:9-18)

- 1)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옆, 행각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 2)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 3)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 하였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
- 4)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라.
- 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리라.
- 6) 유대인의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어떻게 다른가?
 - (1)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가 저서 별이 3개 보일 때까지를 안식일(샤밧)이라고 하며 이 날은 노동을 철저히 금하고 회당 예배, 가족과의 식사, 휴식과 기도 등에 집중한다. 불 피우기, 요리 만들기, 운전, 전자기기 사용 등 39가지 노동을 금한다.
 - (2) 성경에 나오는 참된 안식일은 언제인가?
 -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창2:2-3)
 -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12:8/눅6:5)
 - (3) 성경적 안식일/참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다.
 - 창조 6일 동안의 빛은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창1:3)이므로 태양계(창1:14-19)에 의한 "월화수목금토일"의 요일이 없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이며, 하루의 길이기도 태양

에 의한 2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곱 째 날에 안식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4)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새벽이고, 이 날이 주님의 날(Lord's day) 주일이고, 참된 안식일이다.

(5) 주일은 어떻게 성수 하여야 하나? (창2:2-3)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복 받는 날이다.

지성소의 복, 신령한 복,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복

둘째,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날이다.

지성소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함

셋째,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지성소의 안식, 마음의 안식,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6) 모세의 십계명 중 네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이다.

십계명 중에서 1-4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10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1-10 계명은 모두 같은 계명이지만 5-10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나 1-4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6:4-6)

그러나 하나님의 씨(God's Seed)를 그의 안에 갖고 있는 자는 1-4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 3:9)

(7)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특히 주일/안식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한다.

-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유대인과 같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날/주일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군중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참된 양식

(요6:1-15)

1)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요6:1-4)이 있다.

- (1)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요6:5)
- (2) 예수님은 하실 일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의 마음을 알아보신 것이다.
- (3)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빵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해도 200 데나리온의 빵도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당시 1데나리온은 1일 품삤이다.
- 2026. 7. 26. 현재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32.38달러 × 8시간 = 약 259달러 × 200 데나리온 = \$51,800.00 (한화로 약 77,700,000원)
- (4) 이때에 제자 안드레가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다.
- (5)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남자만 약 5,000명쯤 되었다 (여자와 어린이 제외)
- (6)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 (7)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가 되었다.
- (8) 남자 어른만 약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2)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육신(Flesh) 안에 영(Spirit)과 혼(Soul)이 있다. 양식은 육신(Flesh)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영(Spirit)과 혼(Soul)을 위한 양식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양식은 어떤 것인가?

- (1) 그 양식은 성경에 네 가지이고 모두 일용할 양식이다.
- (2) 일용할 양식은 간식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밥/빵과 같은 음식

이다.

(3) 네 가지 양식은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참된 양식이다.

가) 육신의 양식

매일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양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강에 유익한 정결한 양식이다(행15:19-20/29).

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마4:4)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딤후4:13), 귀로 말씀을 듣고(롬10:17), 입으로 말씀을 먹고 전하는(겔3:1-3)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 아니고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다.

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요4:34)라고 하신다.

-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 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요1:12, 롬8:15-16),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이다.

라) 참된 양식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요6:55)고 하신다. 이 말씀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영체의 양식을 뜻한다.

-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나는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6:19)

3)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결코 주리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는 것이다.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4)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요6:14-15).

-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두 보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사 밤에 홀로 철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대화)하셨다.
-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마14:22-23)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6:24-69)

- 1)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 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 2)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신다.
 - 썩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3)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6:29)
- 4)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다.
 - 모세는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 5) 저희가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 (1)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 (2)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 (3)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 하리라
 - (4)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 (5)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6:36-40)
 - (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요6:51)

6) 이따르모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6:54-55)

7)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요6:56-59)

8) 말씀을 알아듣는 자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 (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 (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9)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

-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노라

10) 제자 중에 말씀을 듣고 떠나는 제자와 남아 있는 제자가 있다.

-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1)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신다.

- 너희도 가려느냐?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하니라(요6:67-69)
(I have believed and have come to know.)
-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믿고 아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12)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와 영감(Inspiration)으로 쓰여졌고 성령님의 조명(Illumination)에 의하여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정경(Canon)은 성도의 삶의 잣대(Measure)와 수평(Level)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12제자로 택하신 이유

(요6:70-71)

1)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나중에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으셨다.

-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눅6:12-16)
-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요6:70)고 하시며 가롯 유다를 이미 아셨음을 밝히셨다.

2) 그러면 가롯 유다를 12제자로 뽑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를 위함이다(창3:15)
- (1) 죄 없으신(히4:15)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롬6:23)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넘길 사람 즉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했다.
- (2)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과 위선에 사로잡혀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어 줄 것을 아셨지만 그를 택하셨다.
- (3) 가롯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가롯 유다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삼년 공생애 동안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 오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
- (4) 그러나 가롯 유다는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따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자아(Ego)가 죽지 않았으며,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다(요일2:16).
- (5) 가롯 유다는 변하지 않았고, 드디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 왔다.
 -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13:2)
 -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

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13:27)

- (6) 결국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 그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마26:14-16)
- (7)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에 정죄됨을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다만 죄책감에 의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마27:5)

3)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회개는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Return to God)
- (1)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눅15:17-19).
- (2)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Admission)한다.
- (3)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Admission)한다.
- (4)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Cofession)한다.
- (5) 하나님 아버지께 죄의 용서를 간구한다(요일 1:9).
- (6)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모든 죄와 악에서 온전히 떠난다(요일1:9).
- (7) 주님의 대속/은혜로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 받은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히 사는 것이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예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

(요7:6)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요 7:6)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뜻한다.

- (1)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한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속량 사역, 사탄을 심판하는 사역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다.
- (2) 그러나 너희들의 때,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 하는 우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 (3)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며, 사람은 시간대(Time Zone)에 살고, 하나님은 영원대(Forever Zone)에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 (4)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를 때가 있다.
 -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3:1-8)

2) 또한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 (1)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 가게 할 때에, 광야에서의 삶에서 유래한 절기이다.
 -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 (2) 이 절기의 영적의미는, 애굽/바로/사탄에서 출 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또한 범죄한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될

때에, 장대에 달린 낫뱀/죽은 사탄/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봄으로 다시 살아 났다(민21:9), 후손들이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의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절기를 지켰다.

(3) 예수님은 초막절 끝 날 곧 큰 날에 전하셨다.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7:37-39)

3) 예수님은 왜 초막절 끝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4) 말씀(Logos)은 하나님이고(요1:1),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요1:14).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나는데 그 생수는 성령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다. 그럼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다.

5)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에 의한 것이다.

(1)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엡1:3-6) : 사랑(Agape/Hessed)

(2)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고전1:18, 요19:30) : 은혜(Grace)

(3) 성령님의 역사(롬8:26-28) : 능력(Power), 교통(Communion)

-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눅17:20-21).

-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와서 예수님께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
(요8:3-11)**

1) 요8:1-2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하신다.

예수님은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고 아침에 성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밤에 계셨던 곳은 어디인가? 감람산이다.

2)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아침이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3) 이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20:10)

4) 이때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계속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

5) 이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1)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 앞에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죄인)를 성전으로 끌고 들어 와서, 예수님께 율법으로 고소하고, 시험한다.

(2)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자나 남자는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끌고 들어왔다. /불법

(3) 율법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왔다. /불법

(4) 그때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5) 왜 예수님은 이때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을까?

-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다.
-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6) 지금은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후에 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들의 과거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7) 예수님은 일어나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

-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3:10-18)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8)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9)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0)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 우리의 죄를 정죄/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 가시니라(요19:30)
-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3-34)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빛은 어두움을 밝힌다.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창1:1), 이 땅에 먼저 찾아온 것은 흑암이었다(창1:2).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2) 하나님은 이 흑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 그 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창1:4).

-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1:3-5).

(3)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어떠한 빛인가?

- 물론 태양 빛은 아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 되었다.

(4) 그러면 그 빛은 무엇인가?

-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곧 그 빛은 하나님 이시고 예수님이시다.

-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1:5)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3-5)

-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9-13)
-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계21:23)
-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22:5)

(5)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와 악의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며,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1-14)

(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이다.
-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취라.
- Shine Bright !
- 너희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라.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1-47)

- 진리는 누구신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1) 진리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가?

-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1)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Sins)를 대속(Redeem)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요19:30-34)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하게 하신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2)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롬 10:4)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3)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마28:5-6)으로, 저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그의 영체(혼과 영)는 죽지 않는다.

-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5-6)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2) 우리의 몸은 육체(Flesh)와 영체(Soul & Spirit)로 되어 있다.

- (1) 첫째 사망은 육체(Flesh)의 죽음이다.
- (2) 아담의 자손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으므로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 (3) 둘째 사망은 영체(Soul & Spirit)의 죽음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영체가 떠난 자이다. 하나님의 영체(Soul & Spirit)가 떠난 자는 마귀의 자녀(요8:44)가 된다.
 -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3) 산자와 죽은자는 누구인가?

- 산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이고, 죽은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이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 (1)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백보좌 심판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신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산 자이고, 이름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이다.
 -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20:11-15)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하신 예수님의 사역

(요9:1-7)

1)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 이르되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2)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당한 사람을 보면 흔히 자기나 부모
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의 팔자(운명)라고 생각하기 쉽다.

3)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
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다.

4)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죄는 예수를 믿으면 사함 받고, 믿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5)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분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6)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고 있었다.

7) 따라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야
한다.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
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라(빌4:4-7)

8)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9)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1) 이 말씀은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빛이라는 뜻이다.

-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에서 살라는 말이다.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2:15-16)

(2) 사람에게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 하나는 육체에 있는 육안(Naked eye)이고, 다른 하나는 영체에 있는 영안(Spiritual eye)이다. 육안이 안 보이면 맹인이고, 영안이 안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리며, 안 보인다.

-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열리고, 말씀을 믿을 때에 알게 된다(요6:69)

(3) 안드레, 빌립, 니고데모는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렸고, 메시야로 고백했으며(요1:40-49),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마16:16).

(4)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신다.

- 발람의 눈을 여신 하나님(민22:31)
-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을 여신 하나님(왕하6:16-17)

10)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드릴 때에, 항상 영안이 열려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아멘" 하게 된다.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9:35-41)**

- 1) 예수님은 전에 육체(Flesh)의 눈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그 사람을 다시 찾아 가셔서 그의 영체(Soul & Spirit)의 눈을 열어 주신다.
- 2) 그를 만나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다. 그가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니라 하시니 맹인 되었던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9:39)
- 4) 여기서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로 마지막 날의 최종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현재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다.
- 5)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한다.
- 6)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 7) 이 말씀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더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죄가 없으려니와 육체의 눈이 보인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않는 자들은 영체의 눈이 맹인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육체 안에 영체의 눈도 있는 것이다.
- 8) 육체의 눈이 맹인이 되어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육체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하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육체의 눈이 떠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체의 눈까지 떠진 사람이 거지 바디메오이다(막10:46-52)

-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

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막10:46-52)

9) 예수님은 맹인의 눈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육체(Flesh)의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의 영체(Soul & Spirit)의 눈까지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17:11-19)

1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 믿음은 성령님의 은사(Gift)이다(고전12:9).
-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섭리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 (요10:1-21)**

1) "나는 양의 문이다"(요10:7)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양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문이라라는 뜻이고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의 양에게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 (1)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양 우리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 (2) 나의 양에게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게 들어가야 한다.
- (3) 양의 문 곧 나를 통하여 양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나 강도다.
- (4)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풀(양식)을 얻는다고 하신다.
 -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풀을 얻으리라(요10:9)
 -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양 우리의 문이시고 방패이시다.
 -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2)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양들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 (1) 양의 선한 목자는 양들과 양 우리의 주인(Lord)이시다.
- (2)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양보다 앞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다.
- (3)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자이다.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10:10)
- (4)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므로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 (5)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10:16)

- (1) 다른 양들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 (2)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가 바울 사도이다. (행13:1-3)
 -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롬1:1)

4)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23:1-2)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죽음과 누이들과 예수님의 사역 (요11:17-45)

1)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체(Flesh)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체(Soul & Spirit)의 죽음이다.

- (1)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육체의 죽음이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체는 이미 살아 있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 (2) 육체의 죽음은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아니고 육체(Flesh)와 영체(Soul & Spirit)의 분리이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어도 그의 영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살아 있어도 그의 영체는 이미 죽은 것이다.
-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영체가 믿는 것이다 따라서 영체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의 육체가 변하여, 이미 낙원에 살아 있는 그의 영체와 합하여 부활체로 휴거하는 것이다(살전4:16-17).
-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의 백보좌 심판에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 곧 영체의 죽음이다.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9)
 -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20:14-15)
- (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체가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11:35)

-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나사로의 죽음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그리고 곧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과 그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뻐할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까?

- (1)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와 함께 우신 것은 마리아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2)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이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
- (3) 남을 가르치거나 설득하여 고치려는 위로가 아니고 함께하는 위로하심이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다.
- (4)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모르고 슬퍼하는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 (5) 잠시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1-44)

3)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심을 믿어야 한다.

- (1)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슬픔을 함께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Agape/Hessed)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4:8)
- (2) 죽은 자가 나홀이 되어 냄새가 나는 죽은 자(요11:39)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Almighty/Logos)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3)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요11:44)하신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Free)(요8:32)를 뜻한다.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 진리는 예수님(Jesus Christ)이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베다니 마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요12:1-8)

1) 베다니 마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 할 때에 각 사람을 보면

- (1)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때에 부엌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 (2)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 (3)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음을 다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본다.
- (4) 이 때에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마리아를 원망하나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한다.
- (5)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

2)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 (1)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음식을 만드는 일(봉사/사역)에 충신했다.
- (2) 나사로는 예수님과 자리를 같이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말씀/예배)에 충신했다.
- (3)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향유/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바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헌신/순교)
- (4) 가롯 유다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평가하고 비판한다.
- (5) 이 때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 그를 가만 두어라.

-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3)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것을 배워야 한다.

(1) 마르다의 일(봉사와 사역), 나사로의 일(말씀과 예배), 마리아의 일(헌신과 순교),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우선 순위는 다른 것이다.

(2)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과 예배이고, 다음이 헌신과 순교이며, 그 다음이 봉사와 사역이다.

-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 하리라(눅10:38-42)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1-5)

(3)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은 예수님께 처음에 드렸던 첫 사랑의 예배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처음 사랑의 예배이다(요4:24).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요12:12-16)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어 입성할 때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마나 적토마나 명마를 타고 화려한 군악대와 함께 나팔을 불며 양탄자나 비단이 깔린 길을 따라 입성한다.

2)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이 타지 않고 버려진 멍에 메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다. 그 길에는 나팔도, 군악대도, 양탄자나 고급 비단 천도 없었다.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

-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21:4-9)

3)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화려한 왕궁에서 비단 보료 위에, 많은 시녀들의 보호를 받으며 오시지 않고, 여관에도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manger)에 강보에 싸여 누이셨다.

- 마구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은 구유(manger)이다.
-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눅2:7)

4)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다.

-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2:1-2)

-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2:11)
-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몰약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눅9:9)

5)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1:18-23)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Wonderful)라, 모사(Counselor)라,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Everlasting Father)라,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라 할 것임이라(사9:6)

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마6:9).

- (1)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사7:14, 마1:23)
- (2) 기묘자: Wonderful
- (3) 모사 : Counselor
- (4) 전능하신 하나님 : Mighty God.
- (5) 영존하시는 아버지 : Everlasting Father
- (6) 평강의 왕 : Prince of Peace. 이시다.

7) 이와 같은 왕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태초에 천지와 만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8) 우리는 왕(통치자) 되시고 제사장(예배/기도) 되시고 선지자(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9)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엡1:4-5) 택하시고(요 15:16) 은혜로 믿음을 주사 구원하셔서(엡2:8) 자녀로 삼아주시고(롬8:14-15)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시련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2:8-9)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유월절에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와서 인자를 뵈고자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12:20-36)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 주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다.

1) 헬라인은 누구인가?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과 유대인들을 제외한 헬라 문화권에 속한 모든 이방인들을 뜻한다.

2)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왔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라고 쓰여져 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기적들의 소문이 이방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직접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메시야가 맞는지 알아 보고 싶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야이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가르치신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4)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삶과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야가 예수님이심을 직접 가르치셨으나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다.(마28:18-20, 막16:20, 행1:8)

5)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주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12:25-26)

6) 요12:27-28의 예수님의 기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이다.

-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요12:27-28)

7) 이 기도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따 먹은 선악과를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시 반납하는 예수님의 기도이다(눅22:42).

- 선악과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갈2:20, 고전15:31, 눅9:23)

8)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신 후에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하신다.

- (1) 하나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 (2) 다른 하나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이다.
- (3)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요12:31) 하신 말씀은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엡2:2)이 심판을 받아 쫓겨 난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탄의 계략 때문이다(요13:2). 사탄은 죄 없으신 예수님(히4:12)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죄없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 값으로 사탄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요16:11).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 심판을 받았다 함은 죽었다는 뜻이다.
- (4)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12:32)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다.

9)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 중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

-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2-43)
-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요12:35-36)

10)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0-14)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하신 말씀
(요13:1-15)

- 1) 예수님은 말씀(Logos)이 성육신(Incarnation)하셔서(요1:14) 이 땅에 오신 하나님(요1:1)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 2) 그러나 사탄/마귀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요13:2)
- 3)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요13:6-10)
- 4)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롯 유다가 듣고 예수님께 발씻음을 받으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이미 사탄/마귀에게 그의 생각/마음이 붙잡힌 바 되어(요13:2),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 5)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하신다.
- 6) 가롯 유다와 같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넣었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 나아와 발씻음 곧 회개하고 죄씻음을 받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다(요일1:9). 그러나 죄악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 법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죄가 되지만, 성경은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도 죄가 된다(마5:27-28).
 - 우리의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서 등지를 틀고 알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7)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신다(요13:12).

(1)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요
13:13)

- 나는 너희들의 스승/멘토(Mentor)이다.

(2)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

- 너희들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3)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5).

- 너희는 나를 본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13:20-35)

예수님께서 심령을 괴로워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누구입니까" 묻는다.

- 1)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 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어둠이러라(요13:26-30)
- 2) 예수님께서 여러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사탄/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사탄/마귀가 그의 속으로 들어갔다(요13:27)
 -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13:2)
 -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 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13:27)
- 3)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신다(요13:31-32)
- 4)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 (1) 서로 사랑(Agape)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Agape)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 (2)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13:35)
- 5)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Agape)하라 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에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1) 육체적 사랑

- Storge : 모성애와 같은 사랑
- Eros : 남녀 간의 사랑

(2) 정신적 사랑

- Phileo : 박애/Charity

(3) 하나님의 사랑

- Agape/Hessed : 성령 충만할 때에 할 수 있는 사랑

6) 십자가에는 죽음의 십자가와 사랑의 십자가가 있다.

(1) 죽음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피흘림의 십자가/예수님의 십자가

-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19:30)
-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요19:33-34)

(2) 사랑의 십자가는 자아(Ego/Soul)가 죽는 십자가/살아서 죽는 십자가/산 제물이 되는 십자가

- 사랑(아가페/헷세드)을 하려면 먼저 자아(Ego)가 죽어야 한다.
-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번제단에서 불에 타야 한다.
- 산 제물은 육체(Flesh)가 죽지 않고, 혼(Soul)/자아(Ego)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교만)이 죽어야 한다(요일2:16).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14:1-13)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요13:33)

1) 예수님께서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다(요14:1-3)

- (1) 우리가 죽으면, 곧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화장, 매장, 수장되지만 그 원자는 질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 공중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체와 다시 합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요5:28-29/ 계20:11-15).

-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 (2) 믿는 자의 영체(Soul & Spirit)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Paradise)으로 간다.

-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2-43)

2)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그 때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한다.

3)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다.

-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다.

-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신다.
- 이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뜻이다(요1:1-14).

4)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다(요14:8).

-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

- (1) 하나님은 영(Spirit)이심으로 육체(Flesh)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 (2)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다(요1:1/4:24).
- (3)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요1:14).
- (4) 말씀(Logos)이 하나님(God)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Jesus Christ)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 말씀(Logos)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야 한다.

5)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요14:10)

- 하나님은 영(Spirit)이시기 때문에 육신(Flesh)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충만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6)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신다(요14:11).

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신다.

- (1)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 곧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신다.

(2) 이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와 성령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뜻이다.

-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3) 이 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약속하신다.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가룟인 아닌 유다의 질문,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14:22-31)**

-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14:23)
- 2)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요14:24)
- 3)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하지만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 4)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다(요14:27)
- 5)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14:28)
 -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고 하심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으로 계신 예수님보다 크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다.
- 6)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14:29) 하신 그 일은 무슨 일인가?
 -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자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요14:29)
- 7)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 (1) 이후로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오겠음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음을 뜻하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사

탄은 죄인들만 죽일 권세를 갖고 있지 죄 없으신 예수님은 관계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7)
 -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 사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관계할 것이 없다.

(2)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그 죄 값으로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요16:11)

-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16:11)

(3) 그러면 죽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가?

-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일3:9)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3:9)

(4)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다.

8) 본 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1) 도마의 질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 예수님의 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 나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2) 빌립의 질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 예수님의 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는 영으로 하늘에 계시고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 땅에 있다.

- 나 예수는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온 하나님이다.

(3) 가롯 아난 유다의 질문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고 하시나이까?

- 예수님의 답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때에 세상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 그 비유를 풀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 구원(Universal Salvation)이 아니고 제한적 구원(Limited Atonement) 이기 때문이다.

- 나 예수는 바로 창세 전에 내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하고 지금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요15:1-11)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영적 관계를 말한다.

- (1)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돌보실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한다.
- (2)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 / 생명의 관계
- (3)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 은혜의 관계
- (4)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제거한다. / 농부의 사역
- (5)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 농부의 사역
- (6)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니라. / 말씀의 관계
- (7)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9)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1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가?

- (1)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 (2)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15:8)

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

하라(요15:9)

-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1)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2)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사랑에는 내가 받을 사랑과 내가 줄 사랑이 있다.
- 받을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받고, 사람에게는 줄 사랑만 생각해야 한다.
- 사람에게 받을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껴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으로 결국 다투게 된다.
- 사람에게 줄 사랑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빚진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된다.
-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받은 사랑에 빚진자들 이다.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빚진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줄 사랑이다.

(3)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줄 사랑에 힘쓸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15:11)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4-7)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예수님의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15:12-19)

1)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 (1)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
- (2)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 (3)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 (4)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 (5)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육체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 (6)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이웃 곧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고 말씀하신다.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 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2) 이렇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다.

-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15:15-16)

3)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는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5-17)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4)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 (1)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 (2) 나는 빛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 (3)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야 한다(요15:14).
- (4)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악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5)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Emmanuel)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In Christ)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 (6) 부활 신앙은 첫째 예수님을 멘토(Mentor)로 삼고 둘째 반드시 주일(Lord's day)을 성수하며 셋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 (7) 나의 삶의 십일조는 첫째 시간의 십일조로 매일 24시간의 십일조 2시간 24분을 바치고, 둘째 양식의 십일조로 30일 중에서 3일은 금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 셋째 소득의 십일조로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 (8) 나의 삶에서, 나의 언행심사에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친구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 주신다 (요16:7-12)

1)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하시며(요16:7-8)

- (1)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16:9)
- (2)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요 16:10)
- (3)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요16:11)고 하신다.

2)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 (1)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 (2)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엡2:8-9)이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4)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 (1) 예수님의 탄생을 믿어야 한다.
 - 여자의 후손(창3:15)/성령 잉태(마1:18-23)/동정녀 탄생(눅1:35)
- (2)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믿어야 한다.
 - 말기유 탄생(눅2:10-20)/애굽 피난(마2:13-15)/불법 재판(요19:1-18)

(3)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대속(요19:30/34)/무덤에 매장(요19:38-42)

(4)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마28:5-6/눅24:1-10/고전15:55-56)

(5)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중보자/중보기도(행1:9/딤후2:5/롬8:34)

(6)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다시 오심/백보좌 심판(살전4:14-17/계20:11-15)

(7) 예수님의 통치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천년왕국/새 예루살렘 성(계20:1-5/21:1-11)에서 통치하심.

5)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요16:10)
고 하신 것이다.

(1)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히4:15)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Mediator)로서 중보기도(Mediator's prayer) 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신다.

(2)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Parakletos/Comforter)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 하셨다(요16:7).

6)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16:11)

(1) 이 세상 임금/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한 말씀은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죽었다는 것이다.

(2) 그러면 사탄은 언제 죽었나?

사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을 때에 사탄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3) 그러면 실상과 허상은 무엇인가?

가) 실상은 이것이다.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무덤에서 부활하셨다(마28:5-6).
-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긴 자이다(고전15:55-58)
-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장대에 달린 놋 뱀(민21:5-9/요3:14-15)은 죽은 뱀이다.

나) 허상을 알자.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 아기 예수는 허상이다.
- 재림하실 때에 오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자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둘째 사망/불못에 던질 것이다(계20:10-15)
-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모두 허상이다.

(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탄은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다. (요 3:14-21)

- 사탄의 공격, 유혹,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 의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히12:2/롬1:17)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15:55-58)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17:1-26)

1)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요17:1-5)

- (1)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 (5)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요17:6-19)

- (1) 아버지여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 (2)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 (3)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 (4)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 (5)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 (6)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7)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 (8)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입니다.
- (9)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 (10)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

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11)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3)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요17:20-26)이다.

- (1)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 (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 (3)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 (4)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셨다.

4)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공관 복음에는 겐세마 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심으로 아담이 따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영적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기도이고 요한복음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승리의 기도이며 부활의 기도이다.

5)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다른 우리에게 있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하신다.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냅니다(행1:8)

그리스도 예수를 불법 체포(요18:3-14)하고, 불법 심문(요18:28-40)하고 불법 재판(요19:1-20)하여 죽인 말씀

1) 불법 체포(요18:3-14)

구속 영장도 없이 가롯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결박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가 다시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것은 불법이다. 왜 그랬을까?

2) 불법 심문(요18:28-40)과 불법 재판(요19:1-20)

(1) 당시 로마제국에 의해 인정받은 자신들의 민족과 기득권이 멸망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현실적 판단에 의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문하는 것은 불법이다(요18:14).

-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요11:47-52)

(2) 유대교 안식일에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새벽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요 18:28).

- 빌라도의 질문 :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요18:29)
- 유대인들의 대답 :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18:30)
- 빌라도의 명령 :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 유대인의 대답 :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요18:31)

(3)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요 18:33)

-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나
 -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요 18:34-35)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요18:36)
 -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18:37)
 -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요18:38)
 - 빌라도가 이르되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요 18:39-40)
- (4)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요19:1-3)
- (5)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19:5)
- (6)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요19:6)
- (7)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이다(요19:7)
-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니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 (8)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니이다.
 -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 (9) 빌라도가 유월절 준비일 제 6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19:14-15)
- (10)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 그들이 예수님을 맡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어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라
- (11)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3) 그러면 예수님의 불법체포, 불법심문, 불법재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 (1)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엡1:4)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헷세드/아가페)을 실천하신 것이다.
- (2) 그것은 아담이 뱀(사탄)으로 인하여 범죄한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랑(창3:15)의 실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은혜(요19:30)이다.
- (3) 가롯 유다의 배신(요13:2/27)과 대 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 (4)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탄은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다(히4:15/민21:8-9)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4-1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과 돌아가신 후,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요19:23-42)**

- 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가 입으셨던 속옷까지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요19:23-24).
- 2)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박혀 공중에 알몸으로 달려있을 때는 몹시 추운 날씨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18:18)
- 3)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염려하여 제자 요한에게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하신다.
 -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 19:26-27)
 - When Jesus therefore saw His mother,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by, He said to His mother, "Woman, behold your son! "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Behold your mother! " And from that hour that disciple took her to his own home. (NKJV)
- 4)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름으로 온 인류의 목마름/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인간의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헛세드/아가페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 대한 목마름, 주님 안에서의 참 안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요7:37-39).
- 5)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요19:30)
 -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 곧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고, 모든 율법도 마침이 되었다는 뜻이다(롬10:4)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것이다.
 -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신 후에 숨지시니라(눅23:46)

6)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다(요19:34).

- 피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히9:22).
-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레17:11).
-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허락한지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 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두니라(요19:38-42).

7)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땅에 묻혀 제자 아리마데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신다.

-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내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 속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누워 계신다.

8) 예수님의 비하(Humiliation)

육신으로 탄생/고난/십자가에서 죽으심/무덤에 묻히심

9) 예수님의 승귀(Exaltation)

부활/승천, 중보자/재림

10)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Agape/Hessed)이고, 예수님의 은혜(Grace)이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20:1-31)

- 1) 안식 후 첫날(주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알린다.
- 2)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와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 3)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빈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머리를 썼던 수건은 보았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까?(요20:9)
 -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믿지 못하더라(요20:9)
- 4) 그러나 같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 대화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 계신 주를 만났다.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 5)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과거의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부활체로 바뀌었다.

부활체는 육체와 같이 몸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고, 음식도 먹고, 말도 하지만, 천사와 같은 영체로 하늘에 속한 자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은 모두 부활체로 바뀐다. 현재 부활체로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다.
- 6) 부활체로 계신 예수님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마치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 오듯이(행12:6-10)
 -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들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로마인들은 박해하였고 헬라인들은 조롱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따랐던(행1:6) 예수님은 십자에서 죽으셨으므로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 (1)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신다.
- (2)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동시에 두려움 불안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힘이 솟아난 제자들로 바뀌었다.
- (3) 예수님은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다.
- (4)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the breath of life)를 불어넣으시니 생령(Living Soul)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생기는 곧 성령(Holy Spirit)을 말한다
- (5)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성령을 받고 그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 (6)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매
- (7) 예수님께서 8일쯤 후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8)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 (1)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 (2)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

9)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 나셨다.

-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24:5)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15:55-58)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 (요21:1-14)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가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 1)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요21:2-3)

(1)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3년 이상을 함께 사시면서 사랑하시고 교육하신 수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나다나엘과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불법 재판에 의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무덤까지 가서 확인하였고 숨어 있는 곳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다시 평강과 성령과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사명을 다 버리고 다시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

특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베드로(마16:16-18) 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마26:33)하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다시 어부로 돌아 가겠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너무 슬픈 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직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다.

- 2) 따라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 3)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 4)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21:6)
- 5)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겹옷을 두른 후에(예의를 갖춘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요21:7)
- 6)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21:8-9)

(1) 숯불의 의미

예수님께서 심문받으실 때에 날씨가 추워서 대제사장 집 뜰에서 쪼던 불이 숯불이었다. 그때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요18:18/개역성경).

(2) 생선과 떡의 의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모여 온 무리들이 남자 오천 명과 여자와 어린이들을 오병이어/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요6:1-13)였다.

(3)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신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 올리니 물고기가 153 마리였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의미는 그물이 찢어져야 그물 안에 잡혀 있는 생선들이 살아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난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의 첫번째 그물은 찢어졌다(눅5:4-6). 그물의 찢어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한다.

- 베드로의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한 번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회개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요13:4-10).

(4)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신다.

- 떡과 생선은 육체의 양식이고, 참된 양식은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이다.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6:55-57)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6-28)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

를 기념하라(고전11:23-25)

(5) 예수님은 이와 같이 숯 불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물의 찢어짐과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사 옛 생활/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Return to me" , "Return to Jesus Christ".

7)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행1:5)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행1:8)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다(행1:9).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21:15-17)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물어보신다.

1)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1) 그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 (2)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2)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1)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 (2) 내 양을 치라/ Tend my sheep.

3)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근심하여 이르되

- (1)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 (2)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4)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로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저들의 심령이 이미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다.

5)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즉 너와 함께 나를 버리고 어부로 돌아간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이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다(요1:41-42). 지금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때와 다르다.

6) 요한의 아들 시몬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다.

7) 예수님의 피 값주고 사신 구원 받은 어린 양은 아무나 먹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것이다.

8)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피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의 양은 하나이다(요15:5).

9)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 양같이 꼴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10)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1)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심문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 집 뜰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왜를 찾기보다 성경의 침묵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12)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실 때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세 번 대답할 때에 한글 성경은 모두 사랑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모두 Love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용하셨고 세 번째에는 필레오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세 번다 나는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13)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첫 째와 두 번째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14)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신다. 그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15) 필레오(Soul의 사랑)와 아가페(Spirit의 사랑)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필레오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 아니고, 정신적, 혼(Soul)의 사랑이다. 따라서 성령충만할 때에는 나의 혼(Soul)이 성령(Holy Spirit)에 붙어 있으므로 아가페 사랑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

(2) 그 사례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일이다.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5)

(3) 육체를 가진 죄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약속(눅1:26-35)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

16) 이와 같이 사람은 성령충만하여 필레오 사랑을 하면 아가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람의 필레오 사랑 + 성령충만 = 아가페 사랑의 결과

17)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 성령충만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18)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것이다.

- Feed my lambs.
- Feed my sheep.
- Tend my sheep.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You follow me)" (요21:22)

- 1)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Feed) 치라(Tend)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You follow me)고 하신다(요21:15-17/19).
- 2)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요21:20-21).
- 3)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You follow me)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 (1) 예수님만 따라가려면, 나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 눈을 고정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 (2) 예수님만 따라 가려면, 나의 의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yoke)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살아야 한다. / 함께 멍에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9-30)
 - (3) 예수님만 따라가려면, 나의 자아(Ego)가 살아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먼저 나의 자아(Ego)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 자아 파쇄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4) 예수님을 만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
 - 예수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이다.
 - 예수님만 너를 죄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

4)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성경적 이유

(1) 우리는 죄인(All have sinned.)

- 사람은 모두 선악과를 따 먹은 아담의 후손이다(창3:6).
-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롬3:10-18/23/6:23).
-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Total Depravity).

(2)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Limited Atonement)
-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믿음과 구원/선물(엡1:4-6/2:8/요3:16/15:16)

(3) 하나님의 사랑(Agape)

- 예수님의 십자가/빛진자/노예(Slave)(고전1:18/잠22:7/롬1:1-4)

(4) 하나님의 양자/아들(sons of God)

- 종을 아들로 삼으심/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
- 롬8:14-17/갈4:6-7/요1:12-13/요일3:9

(5) 예수님의 친구(friends)

- 요15:14-15

(6) 예수님의 신부(The Bride of Jesus)/하나님이 나의 남편

- 계19:7-9/사54:4-5/호2:19-20/렘3:14/31:31-32

(7) 하나님의 성전(The temple of God)/교회 Church

- 고전3:16-17/6:19-20/계21:9-22/엡2:20-22

죄인/죽음 - 예정/택하심/은혜/믿음/구원 - 빛진자/노예 - 양자/아들
- 친구 - 예수님의 신부 - 하나님의 성전/교회가 되게 하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 You Follow Me (요21:22)

우리는 죄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들	예수님 친구	예수님 신부	하나님 성전/교회
죄인/죽음 아담의 후손 전적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구원	하나님의 불가항력 은혜 예정/선택 믿음 구원 선물	하나님 사랑 독생자 십자가 빛진자 노예 Slave	하나님 양자/아들 성도의 견인	예수님 친구	예수님 신부	하나님 성전/교회
창3:6/17-19 롬6:23 3:10-18/23 요15:16 엡1:4-6	엡1:4-6 엡2:8-9 요3:16-17 요15:16	고전1:18 잠22:7 롬1:1-4	롬8:14-17 갈4:6-7 요1:12-13	요15:14-15	계19:7-9 사54:4-5 호2:19-20 렘3:14 31:31-32	고전3:16-17 6:19-20 계21:9-22 엡2:20-22

5)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현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과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교육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권고하신 후에 요한복음을 마치신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버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렬 루 - 할 - 렬 루 - 할 렬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지 - 고 - 마 위 요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고 - 마 위 요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고 - 마 위 요 -
할 - 렬 루 - 할 - 렬 루 - 할 - 렬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 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렬 루 - 야 할 레 ㄹ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렬 루 - 할 - 렬 루 - 할 - 렬 루 야 -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김 정 복 목사
기도학 교수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